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치유 도시 구례 만들겠다”

김순호 구례군수

“전국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이자 치유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제선에 성공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위기와 섬진강 수해를 극복하며 주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핵심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유기농업·치유산업 선도도시 도약,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4대 권역별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등 민선 7기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민선 8기에는 이를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군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당당하고 강한 구례를 만들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선 8기 역점시책을 들면?

▲ 우리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천혜의 생태자원을 더하여 화엄사, 천은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 5대 관광도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삼고, 생태관광과 친환경 유

‘4+α 권역’ 사업·산권역·섬진강...머무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지리산 케이블카 지하채장들과 소통...탄소중립 청정 으뜸도시

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겠다. 민선 8기 10대 프로젝트로 구례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 인구감소 대응,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미래지향적 농업 생태계 확장, 구례 관광르네상스 추진, 농촌마을 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 전국 최고 귀농귀촌 전원도시 조성, 탄소중립 청정 으뜸도시 실현, 미래성장 SOC 건립을 꼽았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노약자가 안전한 도시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 민선 8기에는 친환경유기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치유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구례자연드림 치유·힐링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51만1000㎡ 부지에 422억원을 투자해 치유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다. 청년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게 강화할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를 육성해 불편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공의료기관에

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추진하는 어르신 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노약자·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어떻게 돼가나?

▲ 지리산 국립공원 환경을 보호하고 침체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2012년 지리산 사도 시범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지리산권 4개 시·군 1개 노선 합의의 사유로 조건부 부결됐다. 이후 케이블카 설치 염원 범군민 서명운동, 지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보완용역 등을 거쳐 2021년 11월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 사도시범사업 보완신청을 했으나 올해 6월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내건 4개 시·군 1개 노선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난 7월 산정군수와 면담을 시작으로 합양, 남원 지자체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방안을 찾겠다. 또 환경부에도 지속 소통하여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민선 7기 주요 사업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민선 7기 구례군은 구례읍·섬진강·화엄사·지리산권 4대 권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α (알파) 권역’ 사업을 가다듬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민선 8기에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이블카·사계절 스키장 등 대

규모 관광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소비·체험·힐링 관광을 모토로 머무는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할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오산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화엄사권역 관광 르네상스사업, 지리산안전지구 민간자본 유치 등이 있다. 현재 많은 관광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역권 연계사업을 가다듬어 전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군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재임하게 됐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7기 코로나19 팬데믹과 섬진강 수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느 도시민보다 연대하고 협력하는 우리 군민들의 모습에서 강인한 저력을 온 몸으로 느꼈다. 민선 8기에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군민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것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산업 선도도시 도약,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구례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산동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구례군 산동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산동면사무소는 그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다.

민원인이 휴일 및 업무시간 외에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부터는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구례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기존 군청 당직실과 읍사무소 민원실, 공용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난다.

임채덕 구례군 산동면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류 발급의 편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구례 산동면사무소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구례군 제공>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자조모임, 씨름교실 운영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자조모임이 최근 산동면 발달급 씨름단 전천후 씨름장에서 구례 발달급씨름스포츠클럽에서 펼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인 씨름교실을 진행했다. <사진>

구례 대표 종목인 씨름을 구례군발달급여자씨름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기본자세와 씨름기술을 체험해 봄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환 구례급발달급여자씨름단 감독은 “자조

모임과 씨름단과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며 씨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은 “지역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감사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리더십 등 잠재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추석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상수원보호구역·오염 취약지 등

구례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 기간 단속기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업장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예방하고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 분뇨 등을 무단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을 나설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추석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9월호

2022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도시벽화

회색도시에 색을 칠하다

- 무뚝뚝한 도시 깨우는 화사한 숨결
- 광주의 대표 벽화가 거가 담은 이야기들
- 개성있는 그림, 행복한 이야기
- 사랑받는 '핫 플레이스' 벽화

제7권

영동기획·광주 한미아트

GWANGJU TOUR

#9월 광주여행
#무등산 아트밸리 #익재미술관
#전통문화관 #무등현대미술관 #드림미술관
#국윤미술관

에이문화기행 ⑧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세계 미술애호가 발길 붙잡는 암스테르담 뮤지엄 광장

에이문화기행 ⑨

문화의 품은 건축물 ⑨ 건축이 예술을 만나 빛나는 서울 사비나미술관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 ②

대자연의 숨결과 마야, 잉카 문명의 흔적을 만나다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⑧ 파리에 석공 하다 조각 눈뜨 문신 바지락 먹고 미각 키워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⑩ 영화 '색, 계와 브람스의 모음곡 'Op.118의 2번'